

문화광장



홍 정 호
Universal Edition 소속 작곡가

지난 8월 25일, 유니버설 에디션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다. 오스트리아 연방 예술·문화부가 2027년도 작곡 장학금 공고를 냈다는 안내였다. 전업 작곡가를 대상으로 월 1500유로(한화 230만원 수준)를 12개월, 4개월, 2개월 기간의 작곡 장학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자격은 음악 학위를 마쳤거나 전업으로 활동해 온 전문 음악인이어야 하고, 오스트리아 국적이거나 장학금 기간 내 오스트리아에 거주해야 한다.

메일을 읽으며 든 생각은 하나였

2027년 오스트리아 연방 작곡 펠로우십

다. 제주라면 어떨을까.
제주 문화예술계의 예산과 관심은 오랫동안 늘 연례행사에 몰렸고 일상 속 창작과 전승의 기반은 뒷전이었다. 그 함정은 지금도 그대로다. 지난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은 총사업비 3억6000만원, 180명에게 일인당 200만원 수준이었다. 오스트리아의 1회 지급액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그것도 일회성으로 나눠준 것이다.

물론 2025년 제주도 전체 예산 7조1675억2900만원 중 문화예술 예산은 1312억4500만원으로 1.83%, 1인당 19만5782원으로 전국 공역자치단체 중 1위이다. 이 성과와 숫자에 만족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오스트리아의 장학금이 특별한 이유는 액수가 아니라 설계에 있다. 단발성 지원금이 아니라 창작

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이고, 여기에 더해 작곡가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저작권 사용료의 일부를 다시 건여 새로운 작품 위촉으로 되돌려주는 별도 기금까지 상시 운영된다. 창작이 만든 돈이 창작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다.

제주에 필요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섬의 문화를 이루는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 기반을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느냐 고민이 필요하다. 설계자가 필요하다. 정책부터 예산까지 제주 예술의 성장을 위한 인재를 찾아야 한다.

반면 예술인으로서 반성의 마음도 있다. 우리는 예술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일반 진리처럼 받아들이나. 김호 도의원이 필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제주도의 노래의 음원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어린이 TV로고송 같은 장난 같은 음원의 제주도 노래를 왜 제주 예술인들은 방관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진정 제주에 관심이라도 있기는 하나냐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무관심한데 어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세계 관광지라면 흔하게 동반되는 마을 콘텐츠가 왜 대한민국 제일 관광의 섬이라는 제주에는 없느냐는 것이다. 잘못된 부조리를 누가 해학과 은유로 표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름다운 제주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칠고 투박한 것들을 다듬고 정제하여 제주의 문화를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는 예술인이 되길 바란다는 김호 도의원의 말에 동감한다.

예술인은 예술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설계자는 설계와 구현으로 그 가치를 증명한다.

사설

실종 대응 시스템 보완, 경찰 신뢰 시험대

제주경찰청이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으로 추락한 신뢰 회복에 나섰다.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은 취임 후 첫 지휘부 회의를 열고 실종사건 처리 체계 점검과 민생치안 강화에 경찰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일 김 청장 주재로 전 과장·담당관과 계장급 전원, 도내 3개 경찰서장 및 직할대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치안 강화 대책이 논의됐다. 김 청장은 “도민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만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고 안전한 제주, 다시 신뢰받는 제주 경찰을 향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제주경찰은 우선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실종 신고 접수 이후 모니터링과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건처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도 강화한다.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와 일상 회복 지원까지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은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에 대한 충격이 워낙 큰 데다 민감한 사안이라 경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제주경찰이 추락한 신뢰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주경찰은 보여주기 식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후속 조치가 시험대에 오른 만큼 각고정려해야 한다.

열린마당

추석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부터



이 동 민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까지 이뤄진다. 시설별 에너지 낭비 요인을 찾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지난해 12개소를 진단한 결과 시설을 개선하면 해마다 석유 약 56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약 2억56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1263.5톤에 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단을 실제 시설개선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탐라장애인복지관과 희망원에 히트펌프와 태양광 등을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RE100+ 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비용이 줄어들면 절감된 재원은 돌봄과 복지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시설진단이 일회성 점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시설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도 ‘민관 총력 안전제주의 달’ 운영

민관 합동 안전활동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9월을 ‘민관 총력 안전제주의 달’로 운영하며 도민과 관광객의 체감 안전을 높이고 추석 명절과 전국장애인체전을 계기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

위성곤 지사는 7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중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안전대책과 소비 진작,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 2차 공공기관 이전과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 가운데 모든 부서가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위 지사는 “도민과 함께 제주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더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부서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

오소범기자

인전·친절·민생 결의대회

○…제주시가 7일 ‘민관 협력 안전·친절·민생 60일 실천 결의대회’를 열어 안전하고 친절한 도시 이미지를 알리는 데 전력을 쏟기로 결의.

이날 결의대회에는 자생·유관 단체장과 공직자 등이 참석했고 이중 민간 대표 8명과 공직자 대표 2명은 결의문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 예방과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응대, 민생 은기 회복을 위한 60일간 현장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

이 자리에서 이상봉 제주시장은 “최근 제주 방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다가오는 행사·연휴는 제주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기회”라며 “모두가 찾는 제주, 안전·친절·민생 먼저”라는 구호 아래 제주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

위영석기자

제주 역사문화 인프라 상생 전략 필요하다

최근 제주문화원이 주최한 2026 제주공감포럼에서 제주 역사문화 인프라의 상생 전략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장 부지에 들 어설 예정인 제주역사관(가칭). 지난해 6월 제주돌문화공원에 문을 연 대형 전시실인 설문대할망전시관,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원’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해 온 국립제주문화유산연구소 등 세 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라는 거였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포럼 주제 발표에서는 이들 세 기관의 기능 중복 가능성이 제기됐다. 각 기관이 다루게 될 시대 범위, 아카이브·자료 수집, 전시·교육 프로그램 등이 겹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설 협력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함께 이들을 이어주는 ‘제주 역사문

화 통합 아카이브’를 구축해 공동 수집·검색·활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더해졌다.

제주역사관은 앞으로 약 300여원의 건립 비용을 전액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도내 역사문화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 모색이 시급해 보인다. 제주시 건입동 부지에 자리 잡을 예정인 국립제주문화유산연구소는 전액 국비로 조성하는 시설이지만 연구 성과를 제주에서 공유·활용하는 등 지역과의 밀착도를 높여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제주 역사문화 인프라가 늘어나는 것은 기회이지만 이를 연결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제주를 세계에 알릴 콘텐츠 개발 운운 이전에 역사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발굴이 이뤄지도록 상생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평인
2009 백도라지 평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홀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 주 토 박 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